

대학교 태권도선수들의 실수인식과 그릿에 따른 승부근성 구조적 관계

Structural relationship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Tenacity, mistake recognition and grit

정광채(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문원재(한국체육대학교 교수), 오혜리*(차의과학대학교 박사)

Kwang-Che Jung Korea National Sport Univ. · Won-Jae Moon Korea National Sport Univ. · Hye-ri Oh* Cha Univ

요약

이 연구는 대학교 태권도선수들의 실수인식과 그릿 그리고 승부근성 심리적 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한태권도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학생선수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처리방법으로는 빈도분석, 정규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Cronbach's α ,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결과를 산출하였으며, 이때 사용된 프로그램은 Excel 2013과 SPSS 21.0 그리고 AMOS 23.0을 활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준은 모두 .05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수인식 요인에서는 그릿 하위요인 중 노력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수인식 요인은 승부근성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릿 하위요인 중 노력 요인은 승부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교 태권도선수들의 실수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는 노력과 승부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노력은 개인을 목표를 달성 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of university Taekwondo player's psychological factor in Tenacity, mistake recognition and grit. For that purpose, we conducted a questionnaire to 291 university student athletes registered with the Taekwondo Association. Based on the collected data, frequency analysis, normality verificatio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ronbach's α ,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were applied to calculate the results. Excel 2013, SPSS 21.0 and AMOS 23.0 were used. All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s were set to 05. The conclusion from this is as follows. First, the error recognition factor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ffort factor among the grit sub-factors.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mistake recognition factor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ompetitive strength factor. Third, among grit sub-factors, the effort factor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winning streak. In conclusion, it was confirmed that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mistake recognition contributes to increasing effort and Tenacity, and it is confirmed that continuous effort has a positive effect on achieving individual goals.

Key words : Taekwondo, Mistake recognition, Grit, Tenacity

I. 서론

스포츠분야에서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경기력 관련 요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경기력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체격(신장, 체중, BMI 등), 체력(근력, 근지구력, 순발력 등), 경기내용분석(기술, 경기운영 등) 그리고 심리(불안, 자신감, 번 아웃 등) 등에 대한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중요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면, 실제 현장에서도 위 내용을 바탕으로 스포츠과학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스포츠 종목 중 하나인 태권도 종목에서는 선수들에 대한 심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태권도선수들 심리요인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운동수행 지속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심영균, 김지태, 김현륜(2019) 연구에 따르면 대학선수들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으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운동을 수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선수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인 경우에는 운동을 중도 포기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최연호, 2021) 따라 태권도선수에게 심리적 요인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강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스포츠 심리 분야에서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바탕으로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특히, 태권도 분야에서는 그릿(Grit), 실수인식, 승부근성 요인에 적지 않은 관심을 지니고 있다(김수연, 심영균, 2020; 최연호, 2021; 이승행, 2017). 첫 번째로 그릿 요인의 경우 미국 교육부에서 21세기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 중 하나로 발표하였으며(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도 핵심주제어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그릿은 회복력(resilience), 성장(growth), 끈기(tenacity),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의 합성된 용어로(Duckworth et al., 2007), 지속적인 노력과 일관된 관심을 포함한 장기적인 노력으로 설명한다(심영균, 서은철, 김욱, 2020). 따라서 태권도선수들에게 개인 목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동기를 지속하는 요인으로 그릿에 대한 심리적인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심영균 등 2020; 유주연, 임태희, 배준수, 2021; 윤성찬, 김희정, 서대원, 2020).

두 번째로 실수인식 요인이다. 스포츠현장에서 실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판단되며, 실수는 곧 패배로 이어지는 것으로 야기되고 있다(Sideridis, 2005). 그러나 실수는 부정적인 측면도 물론 존재하지만 실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는 변화할 수 있으며,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자세로 미래 행동을 탐색해야 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신종호, 최효식, 연은모, 홍운정, 2015). 따라서 실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따라 성장하는 과정과 결과들이 달라질 수 있기에 실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실수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선행연구에서는 실수인식과 관련된 연구들이 여러 분야에서 보고되고 있다(함은혜, 2018; 오아름, 신태섭, 2017). 또한 선수들은 실수인식을 어떻게 인지하는

가에 따라 그릿을 설명하는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신연지, 권순형, 2019), 태권도 종목에서도 그릿 요인 중 지속적인 노력이 높을수록 실수인식이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수연, 심영균, 2020; 최연호, 2020)

세 번째로는 승부근성 요인이다. 태권도 종목에서는 개인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승부에 대한 근성에 따라 경기결과가 변화할 수 있다. 이미 태권도 종목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서 승부근성이 인지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승부근성 요인은 경기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미정, 2017; 김영미, 한혜원, 2013, 박정호, 김재요, 정성현, 2016; 김중현, 반은아, 2020; 오영택, 양명환, 2018). 승부근성은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승리에 대한 마음가짐과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정신력을 의미하며(김범준, 2018), 태권도선수들에게 개인성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심리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선행연구에서는 승부근성 요인과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열정, 운동탈진, 응집력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김중현, 반은아, 2020; 오영택, 양명환, 2018).

이처럼 태권도 분야에서는 그릿, 실수인식, 승부근성 요인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별 요인에 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실수인식과 그릿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태권도 분야에서 보고됨에 따라 태권도선수들의 심리적 관계를 규명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태권도 분야에서는 승부근성 요인을 고려하여 그릿과 실수인식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그릿의 경우 긍정심리학회에서 중요성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실수인식 또한 최근 많은 연구자들에게 관심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그릿과 실수인식의 관계를 포함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선수개인의 경기력을 향상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세 가지의 심리요인은 태권도선수들의 경기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각각의 요인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태권도선수들 경기력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세 가지의 심리적 요인(그릿, 실수인식, 승부근성)을 바탕으로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태권도분야 뿐만 아니라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요인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선수들의 심리적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한태권도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교 학생선수 29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 선정 기준은 대한체육회 등록된 대학교 학생선수를 모집단으로 선정하여 50% 기대응답 확률과 95%의 신뢰수준 그리고 6%

의 신뢰구간을 바탕으로 조사하였다. 모집단의 수는 총 4258명이며, 이를 바탕으로 표본을 산출하면 약 252명의 사례 수가 요구된다(대한체육회, 202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설문응답자의 응답 거부 및 불성실 응답 등을 고려하여 310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참여자 수는 291명이다. 구체적인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자	206	70.8
	여자	85	29.2
학년	1학년	94	32.3
	2학년	89	20.6
	3학년	64	22.0
	4학년	44	15.1
	3년 미만	40	13.7
선수경력	3년 이상-5년미만	43	14.8
	5년 이상-7년미만	72	24.7
	7년 이상-10년미만	76	26.1
	10년 이상	60	20.6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태권도선수들의 실수인식, 그릿, 승부근성 심리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실수인식 요인은 17개 문항, 그릿 요인은 11개 문항, 승부근성 요인은 14개 문항으로 총 42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때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형태는 Likert 5점 척도를 적용하였다.

1) 실수인식

Rybowiak, Garst, Frese, Batinic(1999)이 개발한 실수인식 척도(error orientation questionnaire: EOQ)를 서은철, 심영균(2020)이 태권도 선수 대상으로 실수인식 척도의 문항 양호도를 검증하였으며, 심영균, 서은철, 김욱(2020)의 연구에서 타당도를 검토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실수로부터 학습 4문항, 실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 4문항, 실수에 대한 부담 4문항, 실수에 대한 고찰 5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그릿

Duckworth, & Quinn(2009)이 개발한 그릿척도(original grit scale: Grit-O)를 김미정(2015)이 번안하고 신준하, 허진영(2018)의 연구에서 타당도를 검토한 질문지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 6문항, 꾸준한 노력 6문항으로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승부근성

신정택, 김성훈, 박윤식(2009)이 개발한 국내 정상급 선수를 위한 승부근성 척도를 바탕으로 승부욕 5문항, 투혼 9문항, 자신감 6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과 내적일치도를 확인하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서는 모형의 적합도 기준은 TLI : .90이상, CFI : .90이상, RMSEA : .08 이하 경우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또한 타당성 검증은 유의성으로 검증하며, 유의성은 C.R 값이 1.965 이상이면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내적일치도를 확인하는 Cronbach's α 경우 0.7 이상이면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표 2>는 실수인식, 그릿, 승부근성 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실수인식 요인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에서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 17 문항을 바탕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릿의 경우 1번, 3번, 9번 문항의 경우 수렴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있어 기준보다 낮게 나타나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 외 9개 문항은 타당도와 신뢰도 기준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9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승부근성의 경우 6번, 11번, 12번, 13번, 14번, 16번 문항의 경우 수렴타당도를 검증하는데 있어 기준보다 낮게 나타나 문항을 삭제하였다. 그 외 14개 문항에서는 타당도와 신뢰도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14개 문항을 선정하였다.

4. 자료처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빈도분석, 정규성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Cronbach's α ,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은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산출하기 위해 적용하였으며, 정규성 검증은 각 요인별 왜도와 첨도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왜도와 첨도는 West, Finch, & Curran(1995)가 제안한 기준을 통해 검증을 하였다(왜도 ± 2 이하, 첨도 ± 4 이하).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확인적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지수를 산출하여 검사도구의 양호도를 검증하였으며, 세 가지 요인에 대한 구조조적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한 프로그램은 Excel 2013과 SPSS 21.0 그리고 AMOS 23.0을 활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수준은 모두 .05로 설정하였다.

표 2.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결과

잠재변수		측정변수	B	β	S.E	C.R(t)	α
실수인식	실수에 대한 학습	→ 1	1,000	.846			.897
		→ 2	1,061	.884	.056	18.851***	
		→ 3	1,058	.857	.059	18,020***	
		→ 4	.953	.740	.066	14.459***	
	실수에 대한 도전	→ 5	1,000	.688			.822
		→ 6	1,339	.770	.118	11,351***	
		→ 7	1,218	.775	.107	11,415***	
		→ 8	1,282	.712	.121	10,634***	
	실수에 대한 부담	→ 9	1,000	.738			.852
		→ 10	1,349	.909	.093	14,448***	
		→ 11	1,200	.817	.088	13,558***	
		→ 12	.827	.613	.082	10,078***	
	실수에 대한 고찰	→ 13	1,000	.714			.862
		→ 14	1,113	.819	.087	12,806***	
		→ 15	1,030	.743	.088	11,718***	
		→ 16	1,084	.798	.087	12,514***	
		→ 17	.939	.662	.090	10,486***	
TLI=.977, CFI=.981, RMSEA=.030							
그릿	관심	→ 2	1,000	.548			.773
		→ 4	1,094	.545	.155	7,042***	
		→ 5	1,627	.841	.188	8,669***	
		→ 6	1,681	.788	.195	8,641***	
	노력	→ 7	1,000	.472			.745
		→ 8	.845	.421	.157	5,368***	
		→ 10	1,226	.654	.178	6,905***	
		→ 11	1,683	.852	.229	7,355***	
→ 12	1,271	.672	.182	6,985***			
TLI=.922, CFI=.944, RMSEA=.074							
승부근성	승부욕	→ 1	1,000	.829			.908
		→ 2	1,078	.866	.060	18,030***	
		→ 3	1,036	.841	.060	17,240***	
		→ 4	.995	.805	.062	16,148***	
		→ 5	1,057	.757	.071	14,781***	
	투혼	→ 7	1,000	.827			.917
		→ 8	1,009	.847	.058	17,545***	
		→ 9	1,106	.925	.055	20,112***	
		→ 10	1,078	.843	.062	17,414***	
	자신감	→ 15	1,000	.631			.866
		→ 17	1,085	.737	.103	10,527***	
		→ 18	1,218	.909	.100	12,138***	
		→ 19	1,167	.850	.100	11,679***	
		→ 20	1,063	.646	.112	9,485***	
TLI=.947, CFI=.957, RMSEA=.078							

***p<.001

III. 연구결과

1. 실수인식, 그릿, 승부근성 요인 정규성 검증

〈표 3〉은 측정요인에 대한 정규성을 검증한 결과이다. 그 결과 왜도의 경우 -.651 ~ .227에 대한 값으로 나타났으며, 첨도는 -.294 ~ 1.45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West, Finch, & Curran(1995)이 제안한 기준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정규성 검증결과

구 분	평균	표준 편차	왜도		첨도	
			통계량	표준 오차	통계량	표준 오차
실수 인식	실수학습	3.78	.710	-.437	.741	
	실수도전	3.85	.769	-.508	.185	
	실수부담	3.45	.872	-.313	-.265	
	실수고찰	3.79	.653	-.063	-.214	
그릿	그릿관심	3.01	.737	-.058	.143	.285
	그릿노력	3.55	.585	.227	-.294	
승부 근성	승부욕	3.96	.751	-.651	1.056	
	투혼	3.84	.640	-.601	1.450	
	자신감	3.72	.778	-.287	.220	

2. 실수인식, 그릿, 승부근성 요인간의 구조모형 검증

이 연구에서는 실수인식, 그릿, 승부근성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수인식 요인은 그릿관심과 그릿노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둘째, ‘실수인식 요인은 승부근성 요인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그릿관심과 그릿노력은 승부근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다. 이에 따른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1) 구조모형 적합도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에서는 결과를 분석하기 전 구조모형에 대한 모형적합도 지수를 확인해야 한다(Anderson & Gerbing, 1988). 따라서 본 구조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확인하기 위해 TLI, CFI, RMSEA 지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3가지의 모형적합도 지수에서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구조모형 적합도 결과

적합도 지수	TLI	CFI	RMSEA
수용기준	.90이상	.90이상	.80이하
모형적합도	.900	.919	.067

표 5. 구조모형 분석결과

잠재변수			<i>B</i>	<i>β</i>	<i>S.E</i>	<i>C.R(t)</i>	<i>p</i>
실수인식	→	관심	-.058	-.050	.085	-.690	.491
실수인식	→	노력	.795	.548	.124	6.431	<.001
실수인식	→	승부근성	.489	.315	.129	3.801	<.001
관심	→	승부근성	-.001	-.001	.079	-.018	.986
노력	→	승부근성	.370	.345	.088	4.190	<.001

2) 구조모형 검증

구조방정식 모형에서 적합지수를 모두 만족하여 〈그림 1〉과 같이 경로를 설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실수인식 요인에서는 노력($\beta = .548$, $t = 6.431$, $p < .001$)과 승부근성 요인($\beta = .315$, $t = 3.801$, $p < .001$)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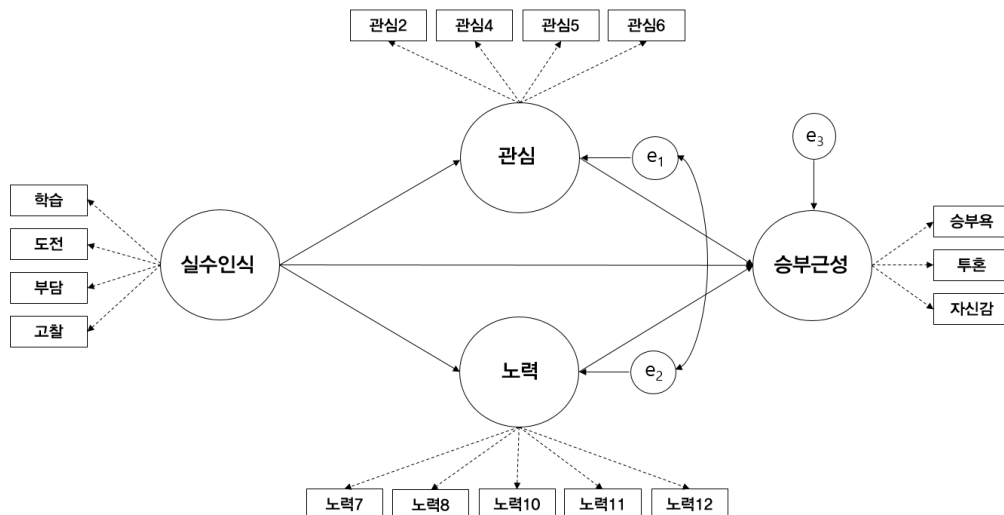


그림 1. 구조모형 도식화

그릿 요인 중 노력에서는 승부근성 요인에게 $\beta = -.345$, $t = 4.190$,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수인식 요인과 관심 요인, 관심 요인과 승부근성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5>와 같다.

IV. 논의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교 태권도선수들의 실수인식과 그릿 그리고 승부근성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학교 학생선수 291명을 대상으로 심리요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를 통해 세 가지 요인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에서는 실수인식 요인과 그릿 요인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실수인식 요인에서는 노력 요인에게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2021) 연구에서는 주니어 골프선수들의 실수인식 요인과 그릿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하였으며, 신준하, 허진영(2019) 연구에서 또한 대학교 운동선수들의 실수인식 요인과 그릿 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본다면 실수인식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지닐수록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노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서정 외(2018) 연구에서는 실패에 대해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그릿을 향상 시킨다고 보고하였다. Duckworth(2014) 또한 그릿이 높은 특성을 지닌 사람은 실수나 실패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를 발전 기회로 삼는다고 보고하면서 그릿과 실수인식에 대한 관계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대학 태권도선수들에게도 실수는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보다는 긍정적인 인식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 및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는 실수인식 요인과 승부근성 요인 간의 간계를 확인한 결과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태권도선수들의 그릿 요인과 실수인식 요인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으나 승부근성 요인을 고려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 중 하나인 승부근성 요인을 고려하여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는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특히, 실수인식 요인과 승부근성 요인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 및 다른 종목에서도 선행되지 않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타 종목에서 정보를 활용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 번째로 그릿 요인과 승부근성 요인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릿 요인 중 노력 요인이 승부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필환(2021) 연구에서는 체육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승부근성 요인이 노력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전승훈, 홍승환(2021) 연구에서는 대학 유도선수들의 대상으로 승부근성 요인과 그릿에 대한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릿 요인 중 노력은 승부근성의 승부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그릿 요인 중 관심은 승부근성의 투혼과 자신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부 지지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승부근성을 세부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였다는 점에서는 선행연구와 차이를 지니고 있지만, 결과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승부근성 요인과 그릿 요인이 정적인 관계를 지닌 것으로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도 종목이 태권도 종목과 같이 개인 종목이며, 상대와 일대일로 겨루는 경기형태를 지니고 있어 심리적인 요인에서 공통적인 결과들이 도출 되었을 거라 판단한다.

Dweck, Walton, Cohen(2014)은 승부근성이 높을수록 도전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으며, 과제나 장기적인 노력을 수행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선수들이 승리를 위한 목표를 지니고 있을 때는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이 이어지고 이를 통해 결국 경기에서 승리를 위한 계기가 된다(전승훈, 홍승환, 2021). 더욱이 승부근성 요인의 경우 선수들의 경기력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에(이승행, 2021) 추후에는 다른 다양한 심리적 요인과의 관계를 확인한다면 새로운 정보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는 태권도 대학교 선수들의 실수인식, 그릿, 승부근성에 대한 심리적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요인에 대한 세부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에서는 기존 심리적인 요인들에 대한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와 달리 새로운 요인을 고려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는 점에서는 연구의 가치는 높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본 연구의 바탕으로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고려하여 관계를 규명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학생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뿐만 아니라 운동 중단 및 포기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요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은 통한 연구와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들이 시도되기를 기대한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교 태권도선수들의 실수인식과 그릿 그리고 승부근성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수인식 요인에서는 그릿 하위요인 중 노력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실수인식 요인은 승부근성 요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그릿 하위요인 중 노력 요인은 승부근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학교 태권도선수들의 실수인식에 대해 궁

정적인 자세는 노력과 승부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노력은 개인을 목표를 달성 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도자 및 대학교 태권도 선수들이 운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김미정 (2017). 유도선수들의 운동능력민음과 인지된 경기력 관계에서 승부근성 및 스포츠자신감의 매개효과 분석. **대한무도학회지**, 19(2), 35-50.
- 김범준 (2018). 고등학교 복싱선수의 성취목표성향과 승부근성 및 운동몰입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7(5), 321-332.
- 김수연, 심영균 (2020). 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실수인식과 번아웃 및 탈퇴동기의 관계. **국기원태권도연구**, 11(1), 81-100.
- 김영미, 한혜원 (2013). 대학운동선수의 승부근성과 자기관리, 운동몰입 및 경기력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7(1), 163-177.
- 김중헌, 반은아 (2020). 태권도 시범선수의 팀 응집력, 승부근성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무예연구**, 14(2), 169-185.
- 박정호, 김재요, 정성현 (2016). 배드민턴 선수의 승부근성과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에서 운동몰입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체육과학회지**, 25(1), 503-515.
- 서은철, 심영균 (2020). Rasch 모형을 적용한 실수인식 척도의 문항양호도 검증.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27, 265-279.
- 신연지, 권순형 (2019). 축구동호인의 참여동기가 실수인식 및 대인관계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8(1), 439-448.
- 신정택, 김성훈, 박윤식 (2009). 국내 정상급 선수를 위한 승부근성 검사지 개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6(2), 755-772.
- 신종호, 최효식, 연은모, 홍윤정 (2015). 성취지향목표가 학습자의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9(1), 113-133.
- 신준하, 허진영 (2018). 체육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스포츠 자신감 및 자기관리 능력이 실수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1), 345-361.
- 심영균, 김지태, 김현륜 (2019). 대학 태권도선수의 은퇴불안과 번아웃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8(4), 249-261.
- 심영균, 서은철, 김욱 (2020). 중·고등학교 태권도선수의 성취목표와 실수인식 및 그릿의 관계.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28, 269-284.
- 오영택, 양명환 (2018). 태권도 선수들의 열정과 의도적 연습간의 관계에서 코칭유형의 매개효과 검증. **국기원태권도연구**, 9(3), 23-39.
- 오아름, 신태섭 (2017). 부모학업성취압력이 학습자 실수인식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성취목표지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31(3), 409-436.
- 유주연, 임태희, 배준수 (2021). 대학 태권도선수의 그릿, 기본심리욕구와 운동몰입에 대한 구조모형 검증. **국기원태권도연구**, 12(1), 39-49.
- 윤성찬, 김희정, 서대원 (2020). 대학 태권도선수들의 그릿과 회복탄력성 및 운동몰입의 관계.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27, 105-121.
- 이승행 (2017). 태권도 품새 선수의 승부근성이 자기관리와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6(4), 229-239.
- 최연호 (2020). 대학태권도 선수들이 지각한 자율성 지지와 번아웃 및 운동지속의 구조적 관계. **한국체육과학회지**, 29(2), 307-318.
- 최연호 (2021). 대학 태권도선수의 그릿, 긍정심리자본, 실수인식의 구조적 관계. **세계태권도문화학회지**, 12(2), 141-156.
- 함은혜 (2018). 사범대학생의 실수인식과 성취목표지향성이 교실평가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평가연구**, 31(3), 775-798.
- 홍세희 (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161-177.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 Rybowiak, V., Garst, H., Frese, M., & Batinic, B. (1999). Error orientation questionnaire (EOQ): Reliability, validity, and different language equivalence.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Industrial, Occupation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Behavior**, 20(4), 527-547.
- Sideridis, G. D. (2005). Goal orientation, academic achievement, and depression: evidence in favor of a revised goal theory framework.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3), 366.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